

협회소식 / 75

건축계소식 / 79

현상설계경기 / 83

해외잡지동향 / 88

도시계획법시행령 / 94

회원현황 / 10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8

뒷마루 / 110

협회소식 KI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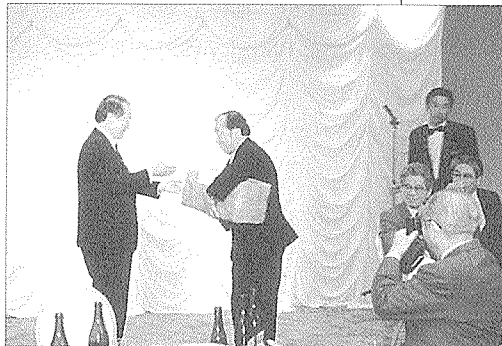
이의구회장, 일본 건축사회 연합회 방문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43회 전국대회 초청받아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협회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가 건축기술정보교류, 건축관련법령 및 제도협의, 건축사상호 관심사항 협의,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지난 1985년 3월 체결된 한·일건축사교류각서에 의해 매년 상호 방문 및 초청 등의 형식으로 긴밀한 유

대관계를 지속해 올하는 일본건축사회 연합회로부터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문화홀에서 열린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43회 전국대회에 초청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방문기간 중 27일 있었던 전국대회 때 이의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건축분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은 양국의 건축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에 힘입어 건축분야의 학술, 기술,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선도해 온 오랜 동반자”라고 말하고,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점차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도 양단체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자국 건축사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나아가 양국 건축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목표 달성과 아시아건축의 권익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자”고 역설했다.



건축기술 및 정보교류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간담회가 있은후 선물교환을 하는 양측대표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이의구 회장



전국대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우리협회, 건축사의『자격의관리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적용 반대

선진외국은 건축설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 별도의 관련법으로 운영
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증에서 국내건축사 불이익 초래 우려

노동부와 교육부는 종전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자격을 이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 '직업능력 표준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자격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자격의관리및 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0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변호사나 의사, 법무사 등 60여개 국가자격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인정된다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관부처가 현행대로 개별법에 의거 관장토록 하면서, 건축사를 비롯한 117개 국가 자격은 이 법에 통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무부 장관이 관리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건축설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사를 이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정부가 건축문화의 주체인 건축사와 그 업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이 법률(안)에서 건축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 건축사업무는 다른 자격과의 통용성이나 호환성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업무분야로 보아, 개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건축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복합적으로 갖춘 건축작가이자 건축문화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건축사는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예술가로서 의사,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사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인증방법도 지식만이 아닌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WTO는 건축사의 주업무인 건축설계분야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간 자격을 상호인증토록하여 건축분야의 국제기구인 UIA(국제건축사연맹)를 통해『건축실무에 관한 전문성의 국제기준 권고에 관한 협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5년제 건축학과정을 도입하는 등 건축학을 건축공학에서 분리하여 건축계획과 디자인 위주의 건축교육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년제 건축대학의 설립에 따른 법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건축사자격면허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도 건축사자격을 건축계획 및 디자인 위주의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축사등록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를 갖추어 건축사의 국제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건축사를 학력 제한이 없는 기술계 및 기능계에 통합관리 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WTO 가입 국가들은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을 인식하여 각 국가별로 별도의 관련법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예술적, 도시적 시각에서 건축물을 계획하고 그 형성과정을 총괄지휘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기능계와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화된 인정방법 및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노동부가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개선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사회

12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4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예산목간전용 승인조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업무용 컴퓨터 운영을 위한 S/W예산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00년도 일반회계(업무추진비→도서인쇄비) 및 건설기술자격관리회계(일반관리비→유지관리비) 예산목간전용을 승인키로 의결함.)
- 제2호의안 : 2001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의 건
 -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이사회 광경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있었다. 준공부문과 계획

부문 수상작 총 39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과 김영렬 서울경제신문사장, 장영수 건설총연합회회장 등 많은 내외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대상을 차지한 게스트하우스 등 본상이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우리협회에 1년간 상설 전시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전시회 관람 광경



전시회 테이프컷팅 광경

회원 E-Mail계정 서비스 신청접수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 등록된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 인터넷을 통한 회원의 무료 E-Mail계정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대략 1,500명정도이며, 사용자능공간은 각 계정당 잠정적으로 5MB입니다.

일정기간까지 접수완료 후 서버의 저장공간을 환산하여 각 계정에 맞는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Mail활용 방법 및 범위는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며 많은 회원님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현재 접수가능하며, 가입신청후 3일 이내에 처리완료하여 신청회원에게 Mail로 가입완료 및 사용자능 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KIRA.OR.KR로 접속하신후 첫 번째 접속 화면상의 "E-Mail 계정신청" 란을 Click 하신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에 문의바랍니다.

신청방법

- ▷ 먼저 HTTP://WWW.KIRA.OR.KR로 접속합니다.
- ▷ 첫번째 화면에서 "E-Mail" 계정신청" 란을 선택합니다.
- ▷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난 후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 ▷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귀하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 ▷ E-Mail ID 난에 원하시는 ID를 입력하시고 "E-Mail 신청" 버튼을 선택하시면 바로 접수 완료가 됩니다. 만약 지정하신 ID가 이미 사용중일 경우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인적사항 등 기타 위에 나열된 사항들이 실제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각 시도건축사협회에 연락하여 수정토록 협조 바랍니다.
- ▷ 신청을 완료하신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전산팀(02-581-57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새천년 건설환경디자인 세계 대회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 주최, 지난 11월 9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리협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11월 9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30층 비너스룸에서 스쿠다스 UIA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 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에서

의 건축의 흐름과 정보교류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간, 지구, 문화를 존중하는 창의성이라는 주제아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새천년건설환경디자인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연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와 건설환경의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스쿠다스 UIA회장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건축에 대한 국제정보교류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길부 건교부차관, 우리협회 방문

건축관련 및 협회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교환

건설교통부 강길부차관이 지난 10월 26일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최근 협회 및 건축계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우리 협회는 최근 건축설계사무소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적정 설계비 산정의 어려움과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른 저가 덤핑설계가 만연하고 있는 등 건축사사무소 경영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리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건축사수에 비해 설계물량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축물의

질적저하는 물론 자칫 건축설계업계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안 제77조(범칙)에서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벌칙기준이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원 의제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건축사의 행정적인 권한이 미약하고, 또한 수수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



협회 아키텍트 갤러리에 전시중인 2000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는 강길부차관

은 현 상황에서 건축사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법개정임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협회의 건의에 대해 강차관은 건교부에서도 다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관련제도는 정부의 규제완화나 개혁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여러가지 어려운 현 상황속에서도 이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건축설계업계의 건의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건축사회 박흥우회원, 제12회 대전시문화상 수상

예술부분에서

우리협회 대전건축사회 소속 박흥우(협창건축사사무소)회원이 제12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예술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9월 30일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있는 제18회 한밭문화제 개막식 때 상을 받았다. 문화상을 수상한 박흥우회원은 건축사로서 33년간 활발한 작품활동과 22년간 충남대에서 강사로 후진양성에 진력하였으며,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시 초대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건축전(대전직할시 건축대전)을 창설해 지방건축전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또 그는 작품집을 비디오에 담아 각 대학 건축과에 배포해 지방 건축문화 활성화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